

“범 종단적 자성과 쇄신운동 펼치자”

조계종, 5대 수행결사 ‘돌입’

조계종이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에 들어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불교의 자존을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 범종단적인 자성(自省)과 쇄신(刷新)의 결사(結社)를 펼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했다. 먼저 종단에서는 결사운동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각 교구별, 지역별 민족문화수호위원회 결성하고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방 스님의 지혜와 신도·신행단체의 원력,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지도자의 조언과 격려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자성과 쇄신 결사는 사부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참회와 변화, 의식 전환을 위한 길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편향된 종교관과 왜곡된 민족문화 인식에 가득 찬 정치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불교의 자립과 자존의 길을 걸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자성과 쇄신을 통해 한국 불교는 자비로서 보살정신을 구현하는 대승불교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우



지난 1월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사진 오른쪽), 포교원장 혜총스님(사진 왼쪽)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범종단적인 자성과 쇄신의 결사를 펼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총무원장 스님, 신년 기자간담회서 천명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 결사 제시 9대 핵심과제·17개 주요과제도 추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자성과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편으로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결사 등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를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5대 결사는 △불교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한 ‘수행결사’ △민족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문화결사’ △생명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생명결사’ △사찰이 이웃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터전이 되도록 하는 ‘나눔결사’ △종교간 평화와 남북평화,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결사’ 등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어 자성과 쇄신 불사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대중공사를 통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사찰과 종도들에게 당부

중의 지혜와 원력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는 운동으로서, 다양한 소통과 정을 거쳐 종단 전체의 결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종교관향정적, 종교간 갈등 조정, 민족문화 훼손 등에 대한 비판과 감시, 대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같은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 발표에 앞서 한국불교가 국민과 우리 사회와 함께 하지 못함을 먼저 참회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을 탓하고 밖의 허물을 구실삼기보다는 나 자신을 직책하고 안을 들여다보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최근 펼치고 있는 ‘민생 안정과 민족문화 수호 활동’이 외부에 향한 요구나 질책이

리 스스로의 변화와 의식 전환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 시대정신을 부여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국 불교가 돼야 한다”면서 “자비로서 보살정신을 구현하는 대승불교가 곧 한국불교의 희망이자 미래가 될 것”이라고 종단과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해 1월 11대 핵심과제와 25개 한국불교가 국민과 우리 사회와 함께 하지 못함을 먼저 참회하고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을 탓하고 밖의 허물을 구실삼기보다는 나 자신을 직책하고 안을 들여다보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최근 펼치고 있는 ‘민생 안정과 민족문화 수호 활동’이 외부에 향한 요구나 질책이

9대 핵심과제는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 개선 △사찰 중심의 지역포교 활성화 △승려복지 시행 △종단 재정구조 다변화 △불

교 규제법령 폐지 및 개정 △한국불교 세계화 △사회적 공동선 실현 △전통문화정책 수립 및 불교문화재 환수 △사회문제의 불교적 대안 창출 등이다.

17개 주요과제는 △불자 네트워크 구축 △결계 포살의 안정적 운영 △해외특별교구 설립 △주지 인사고과제도 정착 △군포교 역량 강화 △불교 미디어 활성화 △종단 전산정보화 △국제선센터 운영 활성화 △사찰음식 대중화 △템플스테이 내실화 △도지처분금의 효과적 활용 △사찰등급 현실화를 통한 분담금 조정 △10·27법안 명예 회복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 △신도교육 조직화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과 활용 △수행법의 표준체계 정립과 대중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사업성

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민족문화 수호 활동에 따른 쇄신과 변화, 자주성 회복을 위한 내용을 핵심 및 주요과제에 반영함으로써 수정 보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년간 종단 내외의 과제를 추진하며 내부적으로는 광복할만한 성과를 뒀지만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처방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이같은 변화의 추진이 매우 어렵고 지난한 일이지만 사부대중의 지혜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법대로 사는 것이 곧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생각하며 더욱 더 올곧게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사부대중의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한국불교 위기에 처했다”

‘불교중흥 위한 대토론회’서 제기

오늘날 한국불교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초기승단부터 시작된 탁발, 무소유 정신의 훼손 때문일까, 정교분리를 외치지만 자립성을 갖추지 못해 정권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까.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가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1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불교위기에 공감한 출재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나 토론자들은 모두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에 공감했지만 제시한 원인은 각각 달랐다. 기초발제를 맡은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한국불교가 사회의 거대담론 논의에 배제된 현실을 지적하며 “민주화, 통일, 인권, 환경문제 등 현실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현실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토론자들 역시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주경스님은 “승가의 근본적인 수행 원칙인 탁발과 무소유 정신을 거의 포기한 형편”이라며 “탁발 폐지로 중생들과의 만남은 단절됐고, 소유에 대한 적절한 원칙과 규정이 없는 탓에 사찰사업을 비롯한 법인, 부동산 및 동산 등 재산소유가 무한대로 허용돼 있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은 출가자 수 감소와 출재가자 양성 시스템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제가 토론자의 지적도 날카로웠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불교가 없는 한국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밤그릇 걱정만 하는 한국불교 승단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철학이 아닌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불교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광범한 한겨레신문 편집인은 또 “근대 불교는 구제역 같은 사회적 현안에는 등을 돌리고 가장 멀리해야 할 은밀한 정치적 거대한 발을 담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대사회에 외면을 받았다”며 “정치권력과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불의에 눈감는 것을 정치 불개입이라고 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토론회는 불교를 이끌어가는 스님과 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현대사회와 한국불교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오는 23일에는 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원택스님이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에 대해 발제하며, 3월30일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스님이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에 대해 고찰할 예정이다.

여현경 기자 eonakdo@bulgyo.com

社告

월 1회 ‘특별한 불교신문’이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불교신문이 월 1회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옵니다. 본지는 매월 첫 수요일자 지면을 ‘월간기획’으로 발행합니다. 출판 선택을 통해 다양한 불서와 교양도서를 소개합니다. 조계종보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의 주요 공고사항을 지면으로 알립니다. 매달 진행되는 승가교육대토론회를 지상중계합니다. 세계 속 한국불교의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방향을 조명합니다.

3월부터는 ‘선묵해자스님과 함께 하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공동기획, 실상사와 함께 하는 〈화엄경〉세주모임품 지상강의, 성철스님 탄신100주년을 기념한 ‘성철스님 수행처와 사상’(월2회) 등 다양하게 지면이 꾸며집니다.

불교신문사



누가 추천하는 상조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대한불교조계종이 추천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무료상담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080-888-5000

850만 역전의 용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00% 출자 상조

경제적인 상조

서비스도 용품도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불자님을 위한 상조-

재향군인회 상조회

중요정보 고지사항 1.종도회가입금 및 환급기준 가. 표준약관 제15조 제 규정에 의한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 만기3개월 후 해지시 납입금액의 100% 환급 2.소비자분쟁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3.주요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환급 제도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사의 종류:대마 100%(중국산)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자명:수제직조(내인) 나. 관의 재질 *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시:오종나무(중국산) 3~4.5cm * 화장시:오종나무(중국산) 1.8~3cm 다.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가리 * 차량의 종류 - 운구리무잔-립컨트(2006년 이상) - 장의버스-현대,기아(2006년 이상) * 추가비용:상품형 기보 무료제공 이외 가리 추가시 10km당 운구버스16,000원 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제당지역 및 행사시(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도유미 추가시:1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임) 4.재향군인회 상조회 현황(2010년 3월 10일 기준) 가. 상조관련자산 19,965,615천원 총 고액 환급의무액 15,400,603천원(국민보통기사의 회계감도를 받았음 -회림회계법인) 5.고액환급금의 관리방법 고액환급금의 35.8%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